

고등학교 가정과학의 운영실태 및 교과에 대한 담당교사들의 인식*
-부산시, 울산시, 경남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가정과학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김 상 희*
경남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The Current Practices and Teacher's Perceptions of
Highschool Home Economics Education
- Focusing on Busan, Ulsan and Kyungnam Area -

Sang-Hee Kim*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yungnam Univ.**

Abstract

This study focuses on the current practices and teacher's perceptions of highschool Home Economics Education in Busan, Ulsan and Kyungnam area. Data were collected from 70 teachers with the questionnaire by mail.

The results were following:

1. Home Economics have been learned at schools of class rooms more than 31, women's high schools and public schools. Teachers more than 70% have operated and lessoned with 4 or 5 among 5 sectors of subject matters, especially emphasized family · human development and food · nutrition sectors. The most difficulties were the shortages of student's interest and reference books.
2. Teachers have cognized highly the connection of Technology · Home Economics and Home Economics, but evaluated lowly the job-course education among the HE's goals.
3. Necessities of HE were evaluated highly, but student's interests by teacher's judgement lowly. Manual theses of clothing · textile and housing sectors have needs to alter partly.
4. Subject matters to add for the near future revision were related to dissatisfaction of H.E's matters. Teachers cognized problems about the excess, overlap, old-fashioned and irrelevant deepen levels of subject matters.

* 본 연구는 2003년도 경남대학교 부설연구소 연구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1) 교신저자: 김상희(hekshvp@kyungnam.ac.kr)

주제어(Key Words) : 가정과학(Home Economics), 운영실태(current practices), 교사들의 인식(teacher's perceptions)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급변하는 21세기 사회 속에서 가정생활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 미래의 사회 및 가정생활에 적합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교육전문가들은 저마다 다른 해법을 내놓고 있다. 가정교과의 올바른 교육은 그 어느 것보다도 바람직할 것으로 볼 수 있다. 7차 교육과정에 들어서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 가운데 기존의 가정교과가 심화 선택과목인 가정과학으로의 변화도 있다. 6차 교육과정까지 고등학교의 가정교과와 가사교과는 여학생을 중심으로 수행되어 왔던 측면이 컸으나 7차 교육과정에 들어서 이러한 틀이 크게 바뀌어 교과목에 있어서 남녀의 성차는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국민공통기본교과 중의 하나로써 기술·가정이 남녀 공통 필수로 이수되지만, 2~3학년에서는 일반 선택과목과 심화 선택과목으로 나뉘어 선택 이수하게 되었다. 가정과학은 심화선택과목 중의 하나로서 위치하고 있으며, 대학입시에 영향을 주는 교과도 아니면서 대입의 압력이 가중되는 고등학교 2~3학년에서 선택되어야 하는 미묘한 입장에 놓여지게 되어 현실적으로 가정과학의 입지가 점차 위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일선 고등학교는 학교의 사정에 따라 심화과목의 선택 여부를 결정할 것이며, 선택하더라도 이수 단위 또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진다. 한편 이수학년에 따라 수업의 충실도가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수학년이 고2가 될지 고3이 될지 아니면 두 학년에 걸쳐서 할지에 따라 가정과학의 다양한 교과 운영이 예측된다. 이미 7차 교육과정에 의한 고등학교 교육까지의 사이클이 완료되었으므로 심화선택과목의 학교 현장에서의 운영 실태와 교과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7차 교육과정하의 기술·가정에 관한 연구는 상당수

이루어져 현장에서의 윤곽이 어느 정도 그려질 수 있음에 비하여(김상희, 2003a, 2003b; 김경애외, 2003; 박노선 외, 2002 등), 심화 선택과목의 윤곽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최근에 유지연·신상옥의 연구(2005)도 있기는 하지만 교육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 델파이연구여서 교육현장의 실태를 파악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가정과학 담당교사를 통하여 제 7차 교육과정 하에서 시행하고 있는 가정과학의 운영 실태와 교과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아직 제대로 파악되지 못한 가정과학의 운영 실태를 비롯 일부지역(부산시, 울산시, 경남)이나마 파악함으로써 향후 가정과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는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7차 교육과정의 가정과학 교과내용은 6차 교육과정의 '가정'과 '가사'과목이 통합된 측면이 많으며, 대학의 가정학개론과 비슷하다고 평가되고 있는데(유지연·신상옥의 연구, 2005),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교과내용에 대하여 담당교사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파악함으로써 향후 교육과정의 수시개정에 대하여 교사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가정과학의 발전에 기초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한다.

2 연구목적 및 연구문제

본 연구는 부산시, 울산시, 경남지역의 일반계 고등학교 중에서 가정과학의 선택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 여자고등학교 및 남녀공학 고등학교에서 가정과학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를 대상으로 가정과학의 운영 실태와 교과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가정과학이 풀어야 하는 과제 및 문제점을 극복하여 앞으로의 교육과정의 변화에 대비한 적극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가진다.

첫째, 부산시·울산시·경남지역 고등학교에서는 가정과학의 운영 실태는 어떠한가? 가정과학의 운영 실태에는 현재 이수학교의 경향, 수업내용으로 다루고자 하는

영역, 수업운영 시 애로사항 등을 포함하였다.

둘째, 가정과학 담당교사들은 가정과학 교과에 대하여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 교과에 대한 인식에는 교과목표의 적합성, 교과내용의 필요도, 교사가 판단한 학생들의 교과내용에 대한 흥미도, 미래의 요구도, 향후 개정되어야 할 내용 및 문제점,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포함하였다.

II. 선행연구의 동향

7차 교육과정에 들어서서 기술·가정 연구는 상당수 진행된 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기술·가정이 제 5차 교육과정에서도 있었고, 다시 7차 교육과정에서 등장하였기(허정철, 2001) 때문에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하여 가정과학은 심화선택과목으로 시행된 지 2년 남짓하여 이에 관한 연구는 극히 적은데, 최정화·장윤옥(2000), 유지연·신상욱(2005)의 연구가 발표된 바 있다.

1. 기술·가정 관련 연구의 동향

기술·가정에 관한 연구는 5차 교육과정에서 기술·가정을 선택한 서울 중심의 일부 중학생과 교사 등을 대상으로 한 연구(박인애, 1990; 김인경, 1991; 채정숙, 1993; 김승수, 1993)가 대부분이었으나, 7차 교육과정에서는 전국적으로 연구가 수행된 측면이 있다. 7차 교육과정 하의 기술·가정에 관한 연구로는 7차 교육과정이 완전하게 실시되기 이전이거나 실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초기에 수행된 연구(곽노선 외, 2002; 이연숙 외, 2002; 손순옥, 2002 등)가 상당수 있었으며, 이들 연구는 내용 면에서는 현실성을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비하여 김상희(2003a, 2003b), 김경애 외(2003), 유재희(2003) 등의 연구는 7차 교육과정에서 기술·가정과 교육이 고등학교 1학년까지 이수된 시기에 이루어져 일선교육 현장을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경남지역 중·고등학교 교사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김상희, 2003a, 2003b)에서 기술·가정 교사들은 교과내용의 진로교육, 기술과 가정의 상호연계성 측면을

낮게 평가하고 있었으며, 자신의 전공이 아닌 타 전공(기술 혹은 가정)에 대하여 스스로 전문성을 낮게 평가하였다. 학생들은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기술·가정수업에 대한 전반적 인식이 낮았으며, 특히 중·고등학생 모두 수업방법의 다양성에 대하여는 상당히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 교과내용 및 교과목표의 적합성 평가에서 생활교육의 적합성이나 생활에 필요한 기초능력 습득과 같은 생활교육 관련 항목은 상당히 긍정적이었으나, 기술교과와 가정교과 내용의 상호연계성 항목은 낮게 나타났으며, 가정교과와 컴퓨터단원은 기술교과 단원보다 높은 평가를 받아 더 잘 활용되고 더 중요하다고 평가하였으며, 남녀 학생들의 기술·가정 내용에 대한 성차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김경애 외(2003)는 광주시와 전남지역 소재 중·고등학교 5개교의 남녀학생을 조사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기술·가정 내용의 필요도에 대하여 '인터넷의 활용', '나와 가족관계', '청소년의 영양'이 높게 나타났으며, 흥미도는 '인터넷의 활용', '나의 주거공간꾸미기', '나와 가족관계'에서 높게 나타났다. 학생들의 성별로 보면 남학생은 기술과 영역을, 여학생은 가정과 영역에서 각각 필요도와 흥미도가 높게 나타났다. 유재희(2003)는 충남 지역의 6개 고등학교 1학년 12학급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결과, 전담지도가 분담지도보다 2배 이상 많았으며, 조사대상 학생의 과반수 정도는 교과의 통합으로 인하여 학습부담이 경감되었다고 느끼고 있었다. 기술교과 분야에서는 남고 학생들이, 교과지도형태에서는 가정과 교사가 지도하는 것이 더 높은 흥미도를 보였다. 유재희 연구에서는 남녀학생을 변인으로는 보지 않고 있었다.

2. 가정과학 관련 연구의 동향

이상과 같은 기술·가정에 관한 다양한 연구에 비하여 가정과학에 관한 연구로 최정화·장윤옥(2000), 유지연·신상욱(2005)의 연구가 있다. 최정화·장윤옥(2000)의 연구는 시기적으로 7차 교육과정의 시행 이전이었으나, 고등학교 학생들이 가정과학을 심화선택과목으로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가정과 교육의 진보적 역할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가정과교사에 대한 인상이 긍정적일수록, 남녀공학이 아닌 경우, 식생

활단원에 대한 요구도가 높을수록,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가 전통적일수록, 어머니가 가정과학을 희망하는 경우에 가정과학의 선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당시로서는 향후 고등학교 2~3학년의 심화과목으로 가정과학의 선택을 예측하는데 유의한 연구로 보여졌다. 유지연·신상욱(2005)은 전문가 집단을 통하여 가정과학의 교육과정을 평가하였는데, 현행 가정과학은 교과목표가 교과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채 기존의 가정교과 목표를 그대로 제시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교과내용에서도 기술·가정의 교과내용과 중복되고 있으며, 가정학의 전 영역을 다루고 있어서 대학의 가정학 개론과 비슷하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가정과학은 기술·가정의 심화선택과목이면서도 6차 교육과정에서의 가정교과와 가사교과를 통합시켜놓은 측면이 있으므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표집방법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부산시, 울산시, 경남지역에 소재하는 일반계 고등학교 중 여자고등학교 및 남녀공학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가정과학 담당교사들이다. 조사대상을 표집하기 위하여 먼저 조사대상지역에서 조사대상학교를 선정하였다. 조사대상학교로 여고와 남녀공학을 선정한 이유는 심화과목 중 가정과학을 선택할 가능성이 가장 많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부산시 45개교, 울산시 18개교, 경상남도 51개교로 총 114개교가 전수표집되었다. 조사대상학교에 우편설문조사 방법을 실시한 결과 조사에 응답한 121명의 교사들 중에서도 실제로 가정과학을 선택하여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는 70명으로 나타나²⁾, 이들이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이다.

2) 응답자 중 가정과학 담당교사가 아닌 교사는 거의가 교과내용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않고 일반적 사항에만 응답하였으며, 나머지 응답자 중에서도 담당수업에 가정과학 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만 분석대상에 포함하였다.

2. 조사도구 및 자료수집 절차

본 연구에 사용된 조사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로서, 이 설문지는 선행연구(김상희;2003)를 참고로 하여 7차 교육과정 해설서 및 가정과학 교과서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구성하여 고등학교 가정과학 담당교사가 검토하였으며, 1차 검토한 설문지를 본 조사에 사용하였다³⁾.

조사에 사용된 설문지는 폐쇄형 73문항과 개방형 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폐쇄형 설문에는 조사대상학교의 일반적 변인(소재지, 학교유형, 학급수)에 관한 3문항, 심화선택과목의 종류, 담당교사 수, 담당 수업 시수에 관한 3문항, 수업운영에 관한 것으로 가정과학의 수업영역, 수업시 애로 등의 2문항, 기술·가정과의 연계성, 교과목표의 적합성 및 기여도에 관한 8문항, 교과내용의 필요도 및 교사가 판단한 학생들의 흥미도, 미래 요구도에 관한 48문항, 조사대상교사의 일반적 속성에 관한 7문항 등 총 7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그 중에서도 기술·가정과의 연계성 평가, 교과목표의 적합성 및 기여도, 교과내용의 필요도 및 학생들이 보인 흥미도, 미래 요구도 등에 관하여서는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고, 개방형 설문에는 앞으로 추가되어야 할 교과내용, 7차 교육과정 하의 가정과학의 문제점,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의 3문항이 포함되었다.

본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은 2004년 10월 20일~11월 26일까지에 걸쳐 조사대상학교로 설문지를 우송하는 우편설문조사 방법을 사용하였다. 조사 대상학교 중 여고에는 2~3부, 남녀공학에는 1~2부의 설문지⁴⁾를 기술·가정계통의 심화선택과목 담당교사 앞으로 우송하였다. 총 198부를 우송하였으나⁵⁾ 그 결과 121명의 교사로부터 설문지가 회수되었다. 회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기한 내에

3) 예비조사를 위한 가정과학 담당교사의 확보에 많은 애로가 있어 2명의 가정과학 교사가 검토한 것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4) 심화선택과목 담당교사수를 정확하게 알 수 없어 총 학급규모가 15학급 이하인 경우 남녀공학 1부, 여고 2부, 15학급 이상인 경우 남녀공학 2부, 여고 3부로 하였다.
5) 설문지를 받은 교사들 중에서 가정과학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전화로 문의해 온 경우와 미회수 학교에 응답 독려전화에서도 가정과학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적 사항만 기재하여 보내달라고 부탁하였다.

회수되지 않은 학교에는 2차 설문지를 우송하였으며, 3차로는 담당교사에게 전화하여 조사를 당부하였다. 미회수된 학교의 대부분은 심화선택과목을 하지 않는다거나, 가정과학을 선택하고 있지 않아 응답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121명의 교사들 중에서도 실제로 가정과학을 선택하여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는 70명으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자료수집 후 결과의 분석은 SPSS 12.0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교차분석, t-test를 하였다. 조사대상 교사 및 근무교의 일반적 속성에 따라 가정과학 이수여부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하였고, 교과내용의 필요도와 교사가 판단한 학생들의 흥미도간에 보이는 차이가 의미 있는 차이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대응표본 t-test를 하였다. 교과목표의 적합성 및 기여도 평가에는 평균을 사용하여 그래프로 나타내었고, 그 외의 분석에는 빈도와 백분율을 사용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가정과학의 운영 실태

1) 가정과학 이수여부에 따른 조사대상교사와 근무교의 일반적 속성

본 연구는 부산시, 울산시, 경남지역에 소재하는 일반계 고등학교 중 여자고등학교와 남녀공학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기술·가정계 심화선택과목 담당교사를 조사대상으로 하였으나 응답자의 40%에 달하는 교사들이 심화선택과목을 이수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미회수된 곳도 대부분이 심화선택과목을 이수하지 않는다고 간주하였을 때 본 연구의 조사대상학교의 과반수 이상이 여기에 해당되어 기술·가정계통의 심화선택과목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의 근거는 1차 미회수된 곳에 2차, 3차로 응답을 촉구하는 연락을 한 결과 대부분이 심화선택과목을 이수하지 않아 설문지에

응답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한 응답에 근거한 것이다. 본 연구의 응답 중 남녀공학고등학교에서 심화선택과목 중 공업기술과 기업경영을 선택하고 있다고 한 교사는 각각 2명, 1명으로 나타났는데, 이 응답은 분석에 사용되지 않았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 교사와 근무교의 일반적 속성을 가정과학 이수여부에 따라 가정과학 비이수, 가정과학 이수로 나누어 교차분석한 결과, 다음의 <표 1>에 나타내었다. 조사대상 교사들은 거의 대부분이 30-40대 여교사들이었으며, 주전공은 가정이었다. 교사경력 또한 대부분이 10년 이상이었으며, 조사대상 교사의 절반정도가 부전공은 없다고 하였으며, 20%이상이 기술 혹은 가정이 아닌 타 전공이 부전공이라고 응답하였다.

조사대상교사가 근무하는 학교의 속성을 보면, 가정과학 비이수의 경우는 여고와 남녀공학이 반반정도이었음에 비하여, 가정과학이수의 경우는 여고(75.7%)가 남녀공학(24.3%)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p<.01$ 수준). 설립유형에서는 가정과학 비이수의 경우는 국공립과 사립이 반반정도였으나 가정과학 이수의 경우는 국공립(64.3%)이 사립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 유의차는 없었다. 총학급 규모면에서는 가정과학 비이수의 경우 16-30학급이 45.1%인 반면에 가정과학 이수의 경우는 31학급 이상이 58.6%로 가정과학 비이수의 경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학교가 많았다($p<.01$ 수준). 현재 근무학교의 기술·가정계통의 교사수는 가정과학 비이수의 경우는 1-2명이 78.4%로 나타났으며, 반면에 가정과학 이수의 경우는 교사수가 4명 이상이 48.5%로 나타났다($p<.001$ 수준). 가정과학 이수의 경우 가정과학 비이수에 비하여 총학급 규모가 큰 경우가 많았으며, 기술·가정과 가정과학을 운영하고자 한다면 교사수가 더 많을 수 밖에 없다고 본다. 조사대상교사를 주당 수업시수에서는 가정과학 이수여부에 관계없이 주당 16-20시간이 각각 60%이상을 나타내고 있다. <표 1>을 통하여 가정과학을 이수하는 고등학교는 비이수 학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여고가 많고, 학급수가 많으며, 기술·가정계통의 교사수가 많은 경향을 가지고 있으나, 교사들의 일반적 속성에는 별다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1〉 조사대상 교사 및 학교의 일반적 속성

단위: 명(%)

교사의 일반적 속성				학교의 일반적 속성					
구분	가정과학비이수	가정과학이수	χ^2 값	구분	가정과학비이수	가정과학이수	χ^2 값		
성	남자	5(9.8)	1(1.4)	$\chi^2 = 4.39^*$ d.f=1	학교 유형	여고	24(47.1)	53(75.7)	$\chi^2 = 10.47^{**}$ d.f=1
	여자	46(90.2)	69(98.6)			남녀공학	27(52.9)	17(24.3)	
연령	20대	3(6.8)	5(7.2)	$\chi^2 = 2.15$ d.f=3	설립 유형	국,공립	24(47.1)	45(64.3)	$\chi^2 = 3.57$ d.f=1
	30대	10(22.7)	30(42.8)			사립	27(52.9)	25(35.7)	
	40대	24(54.6)	29(41.1)		소재지	시지역	43(84.3)	53(79.1)	$\chi^2 = 0.92$ d.f=1
	50대이상	7(15.9)	6(8.6)			군지역	8(15.7)	14(20.9)	
전공	기술·산업	5(11.7)	2(2.9)	$\chi^2 = 3.52$ d.f=1	총 학급 규모	15학급이하	13(25.5)	12(17.1)	$\chi^2 = 12.23^{**}$ d.f=3
	가정	38(88.4)	68(97.1)			16-30학급	23(45.1)	17(24.3)	
경력	9년이하	7(15.9)	6(5.7)	$\chi^2 = 1.77$ d.f=3		기·가+ 심화과목 교사수	31학급이상	15(29.4)	
	10-19년	16(36.4)	24(34.2)		1명		12(23.5)	7(10.0)	
	20-24년	15(34.1)	28(40.0)		2명		28(54.9)	11(15.7)	
	25년이상	6(13.6)	12(17.1)		3명		8(15.7)	18(25.7)	
부전공	없다	25(49.0)	38(54.3)	$\chi^2 = 3.18$ d.f=3	주당 수업 시수	4명	2(3.9)	21(30.0)	$\chi^2 = 0.22$ d.f=3
	기술.가정	7(13.7)	11(15.7)			5명이상	1(2.0)	13(18.5)	
	기술	6(11.8)	5(7.1)			10시간이하	4(7.8)	6(8.5)	
	기타	13(25.5)	16(22.9)			11-15시간	12(23.5)	18(25.7)	
지위	정규직	39(88.6)	67(95.7)	$\chi^2 = 2.07$ d.f=1		16-20시간	34(66.7)	44(62.9)	
	비정규직	5(11.4)	3(4.3)			21시간이상	1(2.0)	2(2.9)	
	합계	51(100.0)	70(100.0)			합계	51(100.0)	70(100.0)	

1) 무응답은 제외하였으므로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p<0.05, **p<0.01, ***p<0.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2) 수업내용으로 다루고자 하는 영역

현행 7차 교육과정 가정과학의 내용은 6차 교육과정에서의 '가정' 과목과 '가사' 과목에서 다루어지던 내용이 상당수 포함되어있는데, 이수시간에 비하여 교과내용의 방대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하여 교육과정 해설서에도 가정과학 수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교사는 5대 영역 중 2개 대영역 이상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조사대상 교사들로 하여금 실제 수업에서 다루고자 하는 영역을 중영역으로 나누어 선택하게 한 결과를 다음의 〈표 2〉에 제시하였다. 선택율이 50% 이상을 나타낸 영역은 가족생활의 '인간발달과 가족관계', '결혼

과 가족생활', '자녀양육', 식생활의 '가족의 영양과 건강', '식품의 선택과 조리', '음식문화와 음식마련', 소비생활의 '소비자역할과 보호', 의생활의 '의복의 착용과 선택', '의복의 재료와 관리', 주생활의 '주생활과 환경'으로 나타났다. 특히 식생활영역은 타 영역에 비하여 선택율이 월등하게 높게 나타나 이에 대한 교사들의 높은 인식을 엿볼 수 있다. 다음으로는 가족생활영역이 높게 나타난 반면, 의생활의 '편물과 지수'는 가장 낮은 21.4%의 선택율을 보여 이 영역의 유지에 대하여 신중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다. 소비생활의 '가정자원관리', '가정경제의 설계', 의생활의 '의복의 디자인과 제작', 주생활의 '주거의 디자인', '주거의 관리' 등은 40%의 선택율을 보여 상대적으로

〈표 2〉 중영역별로 본 다루고자 하는 수업내용(중복 응답)

단위: 명(%)

대영역	중영역	다루고자 하는 영역 N=70
가족생활	인간발달과 인간관계	45(64.3)
	결혼과 가족생활	51(72.9)
	자녀양육	52(74.3)
소비생활	가정자원관리	31(44.3)
	가정경제의 설계	30(42.9)
	소비지역활과 보호	46(65.7)
식생활	가족의 영양과 건강	64(91.4)
	식품의 선택과 조리	60(85.7)
	음식문화와 음식마련	51(72.9)
의생활	의복의 선택과 착용	47(67.1)
	의복의 재료와 관리	50(71.4)
	의복의 디자인과 제작	31(44.3)
	편물과 자수	15(21.4)
주생활	주생활과 환경	37(52.9)
	주거의 디자인	31(44.3)
	주거의 관리	34(48.6)

로 낮은 인식을 보이고 있었다.

〈표 2〉에 제시한 중영역이 한군데 이상 선택된 경우 해당 대영역을 수업내용으로 다루고자 한 것으로 간주하여 대영역별로 묶은 결과를 다음의 〈표 3〉에 나타내었다. 2개 이상의 대영역을 선택하여 집중 이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2개 내지 3개 영역을 선택한 교사는 전체의 1/4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70% 이상의 교사들이 4~5개의 대영역을 수업내용으로 다루고자 하고 있다. 즉 5개 대영역을 모두 다루고자 하는 교사는 전체의 57.1%로 나타났으며, 4개 대영역을 다루는 경우는 14.3%, 3개 대영역을 다루는 경우는 15.8%, 2개 대영역을 다루는 경우는 10.0%로 나타났다. 실제 이수단위가 4~6단위에 지나지 않아 가정과학의 모든 교과내용을 다루기에는 수업시수가 충분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사들이 2~3개 대영역을 깊이 있게 다루기보다는 거의 모든 대영역을 골고루 다루고자 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하나

는 현행 가정과학의 교과내용 중 2~3개 대영역을 선택하여 집중 이수시키기에는 대영역의 심화수준이 충분치 못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 하나는 비록 수업시수가 충분치 못하다고 하더라도 전통적 가정교과에 대한 인식이 뿌리깊어 가정과학의 전반에 대하여 골고루 다루어 주어야 한다는 사고가 지배적이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7차 교육과정 하의 심화과목의 취지와 가정과학 담당교사들간의 인식이 일치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수업운영 시 애로사항

가정과학 수업을 운영하면서 교사들이 경험하게 되는 애로사항을 해당 항목에 모두 체크하도록 한 결과를 정리하였다(표 4).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학생들의 흥미 부족'(51.4%)을 꼽고 있었다. 다음으로 '참고서 부족'(50.0%), '수업자료의 부족'(41.4%), '실습부족'(40.0%)으

〈표 4〉 가정과학 수업시 애로사항

	단위:명(%)
	빈도 N=70
①수업시수의 불충분	19(27.1)
②표준수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점	19(27.1)
③학생들의 흥미부족	36(51.4)
④수업자료의 부족	29(41.4)
⑤교과의 전문지식 부족	10(14.3)
⑥실습 부족	28(40.0)
⑦수업내용의 과다함	20(28.6)
⑧실습에 대한 부적절한 행정지원	16(22.9)
⑨학생들이 참여하기 어려운 교과내용	6(8.6)
⑩실생활에 이용하기 어려운 교과내용	13(18.6)
⑪연구시간의 부족	1(1.4)
⑫실습실의 부족	11(15.7)
⑬참고서 부족	35(50.0)
⑭기타	10(14.3)

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학생들의 흥미부족'은 가정과학이 대학수능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학생들에게 동기부여가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지며, 이것이 교사들이 경험하는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다음으로 큰 비율을 보인 '참고서 부족'은 학생들의 흥미부족에서 나타난 원인과도 관련이 있다고 보인다. 대학수능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잘 팔릴 것 같지 않으니 출판사에서 다양한 참고서의 출판을 꺼리게 되고 교사와 학생들은 좋은 참고서의 부족으로 수업자료의 부족, 가정과학에 대한 흥미가 부족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수업자료의 부족'까지 연관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업자료의 부족은 교사들의 노력여하에 따라 어느 정도 극복될 수 있는 사정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실습부족'은 단순히 수업의 내용에 의하기 보다는 수업시수의 문제, 실습비용의 문제, 학사일정 등의 다양한 사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적당한 실습은 학생들의 가정과학

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교사들의 적극적 자세와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2 가정과학 교과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1) 교과목표의 적합성 및 기여도에 대한 인식

기술·가정은 국민기본공통교과로 고등학교 1학년에서 이수하고 2~3학년에서는 일반선택과목인 정보사회와 컴퓨터, 심화선택과목으로는 농업과학, 공업기술, 기업경영, 해양과학, 가정과학으로 구성된다. 이와 같은 교육과정의 체제 면에서 파악되었듯이 가정과학은 기술·가정과 깊은 연계성을 가지도록 되어 있다. <그림 1>에는 조사대상 교사들의 기술·가정과 가정과학의 연관성, 교과목표의 적합성 및 기여도에 대한 인식을 5단계 리커트 척도로 나타낸 결과의 평균을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가정과학

〈표 3〉 대영역별로 본 다루고자 하는 수업내용

수업내용으로 다루고자 하는 대영역		빈도 N=70	
5개 영역	가족생활+소비생활+식생활+의생활+주생활	40(57.1)	
4개 영역	가족생활+소비생활+식생활+의생활	6(8.6)	10(14.3)
	가족생활+소비생활+식생활+주생활	1(1.4)	
	가족생활+식생활+의생활+주생활	3(4.3)	
3개 영역	가족생활+식생활+의생활	6(8.6)	11(15.8)
	가족생활+소비생활+식생활	2(2.9)	
	소비생활+식생활+의생활	2(2.9)	
	식생활+의생활+주생활	1(1.4)	
2개 영역	가족생활+식생활	2(2.9)	7(10.0)
	가족생활+소비생활	1(1.4)	
	소비생활+식생활	1(1.4)	
	식생활+의생활	2(2.9)	
	식생활+주생활	1(1.4)	
1개 영역	식생활	2(2.9)	
합계		70(100.0)	

은 기술·가정과의 연관성에서 평균 3.3을 나타내어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가정과학의 3대 교과목표의 적합성에 대하여는 3항목 간에 다소 차이를 보였는데, '생활에 관련된 기초능력의 습득과 합리적 가정생활의 관리'는 평균 3.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진로분야의 이해와 직업세계의 탐색'은 3.0으로 보통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개인과 가정의 복지증진 참여와 국가사회발전에 기여'는 평균 3.33으로 나타났다. 즉 조사대상 교사들은 가정과학이 생활에 관련된 기초능력의 습득이나 합리적 가정생활의 관리에는 상당히 적합한 과목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진로와 직업탐색에 대하여는 타 목표에 비하여 다소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개인과 가정의 복지증진과 국가사회발전에의 기여는 위의 두 가지 목표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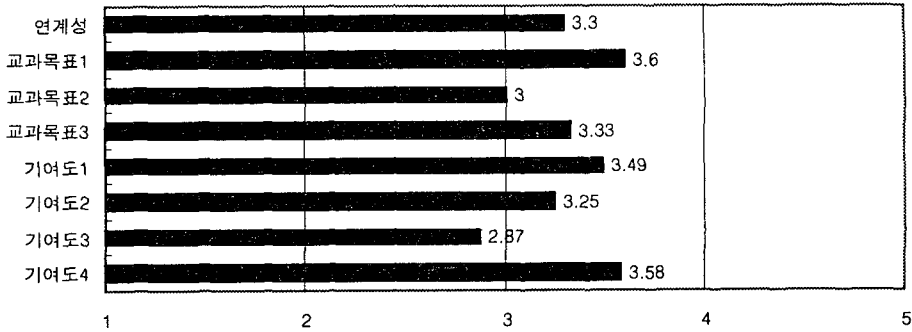
조사대상 교사들이 보는 가정과학이 학생들의 미래생활에 대한 기여 정도를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은 4항목에서 살펴보면, 3번째 '학생들의 진로교육에 적합하다'를 제외하고는 보통 이상의 높은 인식 수준을 보여주었다. '앞으로의 가정생활의 요구를 잘 반영하고 있다'에서는 평균 3.49, '앞으로의 사회 요구를 잘 반영하고 있

다'에는 평균 3.25, '진로교육에 적합하다'에는 평균 2.87, '생활교육에 적합하다'에는 평균 3.58로 나타났다. 교과목표에서와 같이 진로교육의 적합성에 기여하는 정도는 미흡한 인식을 보인 반면에 미래 가정생활의 요구와 생활교육의 적합성에 기여하는 정도에는 매우 긍정적인 인식 수준을 나타내 보이고 있었다. 미래사회 요구에 대해서는 그 중간적인 인식 수준을 보였는데, 변화하는 미래사회에서 학생들이 사회의 주된 구성원으로서 보다 잘 적응하려면 가정교과에서 미래사회의 요구에 부합되는 교과내용을 적극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가장 취약하다고 보여지는 진로교육적 요구에 대하여는 좀더 적극적이며 다양한 접근 방법의 모색이 요구되어진다.

2) 교사들이 본 교과내용의 필요도 및 학생들의 흥미도, 미래의 요구도

(1) 교사들이 본 교과내용의 필요도와 학생들의 흥미도

가정과학 담당교사로서 가정과학 교과내용의 각 영역에 대하여 교과목표 및 기여도를 고려하여 어느 정도 필



- 연계성: 가정과학과 기술·가정과의 연계성
- 교과목표1: 생활에 관련된 기초능력을 습득하여 가정생활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교과목표2: 가정과학에 관련된 진로분야를 이해하고 관심있는 분야의 직업세계를 탐색하고 준비할 수 있다.
- 교과목표3: 개인과 가정의 복지증진에 책임감을 가지고 자주적으로 참여하며,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 기여도1: 앞으로의 가정생활의 요구를 잘 반영하고 있다.
- 기여도2: 앞으로의 사회 요구를 잘 반영하고 있다.
- 기여도3: 학생들의 진로교육에 적합하다.
- 기여도4: 학생들의 생활교육에 적합하다.

<그림 1> 기술·가정 연계성 및 교과목표의 적합성 및 기여도에 대한 인식

요하다고 보는지(필요도), 또한 평소 수업을 통하여 느낀 학생들의 나타난 교과내용 영역에 대한 흥미의 정도(흥미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하여 5단계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필요도와 흥미도는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이 차이가 의미 있는 정도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도와 흥미도를 대응표본으로 하여 t-test한 결과를 다음의 <표 5>에 나타내었다. 식생활 영역의 '음식문화와 음식마련'을 제외하고는 전 영역에 걸쳐서 필요도와 흥미도간에는 $p < .01$,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교사들이 보는 각 영역의 필요도는 교사가 본 학생들의 흥미도보다 낮게 나타났다. 필요도가 가장 높다고 본 것은 식생활영역의 '가족의 영양과 건강'(4.71), 가족생활영역의 '자녀양육'(4.70), '결혼과 가족생활'(4.61), '인간발달과 인간관계'(4.50), 식생활영역의 '식품의 선택과 조리'(4.47) 등이었으며, 주로 가족생활과 식생활 영역에 대한 필요도를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필요도에서 가장 낮은 인식을 보인 것은 의생활 영역의 '편물과 자수'(3.17)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의복의 디자인과 제작'(3.61), 주생활영역의 '주거의 디자인'(3.67)으로 나

타났다. 이들 영역의 필요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인식을 보였지만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은 아니다. 이들 영역은 주로 기능적 측면이 강한 내용인데, 이러한 상대적 낮은 인식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먼저 현대사회에서의 수작업에 의한 생산의 중요성이 극히 낮아진 데에 원인이 있을 수 있겠다. 또한 성인이 된 후에도 필요하면 언제든지 익힐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보여진다. 결국 교사들이 기능적 측면의 교육을 다소 경시하는 경향을 간접적으로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체험학습을 통한 교육 효과에 대하여 낮은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도 해석된다.

교사들이 본 학생들의 교과내용에 대한 흥미도에서는 가족생활영역의 '결혼과 가족생활'(4.10), '자녀양육'(4.00), 식생활영역의 '음식문화와 음식마련'(3.98), '식품의 선택과 조리'(3.85)의 순으로 나타났다. 필요도가 높다고 본 영역과 흥미도가 높다고 본 영역이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 흥미도를 가장 낮다고 본 것은 의생활영역의 '편물과 자수'(2.79), '의복재료와 관리'(2.91), 소비생활영역의 '가정 자원 관리'(2.83), '가정경제의 설계'(2.96), 주생활영역의

‘주거의 관리’(2.94) 등이었는데, 이들 영역은 보통이하의 낮은 평가를 나타내었다. 이들 교과 영역은 주로 학생들의 미래생활에 관련되어 현재의 활용에서는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하기에는 다소 거리가 멀다고 보여지는 내용들이다.

특히 ‘인간발달과 인간관계(필:4.50, 흥:3.55)’, ‘가정자원 관리(필:3.94, 흥:2.83)’, ‘가정경제의 설계(필:4.12, 흥:2.96)’, ‘소비자의 역할과 보호(필:4.42, 흥:3.28)’, ‘의복재료와 관리(필:4.06, 흥:2.91)’ 영역은 필요도와 흥미도간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서 교사들 스스로 이 영역에 관하여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수업 자료의 개발과 수업방법의 개선 등 다양한 각도에서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2) 교사들이 본 교과내용의 미래요구도

현행 7차 교육과정의 가정과학 내용을 현장에서 운영해 본 결과 앞으로의 수시개정에 대비하여 교사들은 각 영역에 어떠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각 교과내용의 중영역별로 ‘수정(혹은 개선)’, ‘강화’, ‘이대로’, ‘약화’, ‘폐지’로 나누어 응답하게 하였다. 현행 교과내용 수준을 앞으로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고 보는 경우를 ‘이대로’, 현행 교과내용 수준에 약간의 내용 수정이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를 ‘수정(혹은 개선)’, 내용의 양적 확대 내지는 질적 심화가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를 ‘강화’, 내용의 축소 내지는 약화가 필요하다고

<표 5>교사들이 본 교과내용의 필요도와 흥미도의 대응표본 t-test

				M(SD)
대영역	중영역	필요도	흥미도	t-값
가족생활	인간발달과 인간관계	4.50(0.56)	3.55(0.79)	9.78***
	결혼과 가족생활	4.61(0.58)	4.10(0.78)	4.83***
	자녀양육	4.70(0.46)	4.00(0.84)	7.03***
소비생활	가정자원관리	3.94(0.83)	2.83(0.76)	10.51***
	가정경제의 설계	4.12(0.69)	2.96(0.75)	12.06***
	소비지역할과 보호	4.42(0.64)	3.28(0.74)	10.21***
식생활	가족의 영양과 건강	4.71(0.52)	3.66(0.91)	9.19***
	식품의 선택과 조리	4.47(0.64)	3.85(0.93)	5.36***
	음식문화와 음식마련	4.05(0.72)	3.98(0.89)	0.49
의생활	의복의 선택과 착용	4.19(0.68)	3.63(0.85)	4.70***
	의복의 재료와 관리	4.06(0.78)	2.91(0.81)	9.83***
	의복의 디자인과 제작	3.61(0.81)	3.13(0.85)	4.11***
	편품과 자수	3.17(0.91)	2.79(1.00)	2.91**
주생활	주생활과 환경	3.96(0.73)	3.10(0.74)	7.16***
	주거의 디자인	3.67(0.73)	3.33(0.81)	2.85**
	주거의 관리	3.74(0.75)	2.94(0.76)	7.89***

p<.01,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고 보는 경우를 '약화', 내용의 삭제 내지는 대폭적 축소가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를 '폐지'로 파악하여 정리한 것을 <표 6>에 나타내었다.

교과내용의 강화를 요구하고 있는 영역은 가족생활영역, 소비생활영역, 식생활영역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가장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중영역은 '소비자역할과 보호'(60.0%)로 현행 교과서의 이 부분의 내용에 상당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듯이 보인다. 앞으로의 사회 및 가정생활에 현명한 소비자로서의 역할은 점차 중요해질 것으로 보이는 데에 비하여 현행 교과내용은 교사들의 이러한 인식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결혼과 가족생활' (57.1%), '가족의 영양과 건강' (55.7%), '자녀양육'(51.4%), '인간발달과 인간관계'(45.7%) 등의 차례로 나왔는데, 대체로 필요도가 높다고 본 영역과 일치하는 경향이다.

교과내용의 수정이나 개선 요구는 전 영역에 걸쳐서 약 10~20%정도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의생활영역과 주생활영역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중영역 중에서도 특히 '주거의 디자인'(20.0%), '주거의 관리'(17.1%), '의복재료와 관리'(17.1%), '의복의 디자인과 제작'(17.1%), '주생활과 환경'(15.7%), '가정경제의 설계'(15.7%) 등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현행수준을 유지해도 된다고 보는 영역은 '음식문화와 음식마련'(61.4%), '주거의 관리'(52.9%), '의복의 선택과 착용'(47.1%), '의복의 재료와 관리'(47.1%), '식품의 선택과 조리'(47.1%) 등의 차례로 나타났다.

약화 혹은 폐지를 요구하는 영역은 '편물과 자수'(약화: 35.7%, 폐지: 11.4%), '의복의 디자인과 제작'(약화: 24.3%, 폐지: 4.3%), '주거의 디자인'(약화: 12.9%, 폐지: 7.4%), '주거의 관리'(약화: 12.9%, 폐지: 4.3%), '의

<표 6> 교사들이 본 교과내용의 미래 요구도(N=70)

대영역	중영역	단위: 명(%)				
		강화	수정/개선	이대로	약화	폐지
가족생활	인간발달과 인간관계	32(45.7)	7(10.0)	27(38.6)	1(1.4)	0
	결혼과 가족생활	40(57.1)	7(10.0)	20(28.6)	0	0
	자녀양육	36(51.4)	9(12.9)	21(30.0)	1(1.4)	0
소비생활	가정자원관리	16(22.9)	10(14.3)	31(44.3)	9(12.9)	2(2.9)
	가정경제의 설계	21(30.0)	11(15.7)	30(42.9)	5(7.1)	1(1.4)
	소비자역할과 보호	42(60.0)	5(7.1)	20(28.6)	1(1.4)	0
식생활	가족의 영양과 건강	39(55.7)	7(10.0)	20(28.6)	1(1.4)	0
	식품의 선택과 조리	23(32.9)	10(14.3)	33(47.1)	2(2.9)	0
	음식문화와 음식마련	16(22.9)	8(11.4)	43(61.4)	1(1.4)	0
의생활	의복의 선택과 착용	18(25.7)	10(14.3)	33(47.1)	5(7.1)	1(1.4)
	의복의 재료와 관리	11(15.7)	12(17.1)	33(47.1)	11(15.7)	0
	의복의 디자인과 제작	8(11.4)	12(17.1)	27(38.6)	17(24.3)	3(4.3)
	편물과 자수	7(10.0)	5(7.1)	21(30.0)	25(35.7)	8(11.4)
주생활	주생활과 환경	16(22.9)	11(15.7)	32(45.7)	6(8.6)	2(2.9)
	주거의 디자인	8(11.4)	14(20.0)	31(44.3)	9(12.9)	5(7.4)
	주거의 관리	5(7.1)	12(17.1)	37(52.9)	9(12.9)	3(4.3)

* 부응답의 비율은 표에서 생략되었음.

복의 재료와 관리'(약화: 15.7%) 등의 차례로 나타났는데, 주로 의생활과 주생활영역에 집중되어 있었다.

전반적으로 가족생활영역에 대해서는 교과내용의 양적 확대 내지는 질적 심화를 요구하는 강화의 방향이 요구되고 있으며, 소비생활 영역에서도 특히 '소비자역할과 보호'는 강화시키되 다른 중영역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부분적 강화라는 방향으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었다. 식생활영역은 '가족의 영양과 건강'에 대하여서는 강화하되 타 중영역은 현행수준을 유지하되 부분적 강화라는 방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의생활영역은 가장 큰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의복의 디자인과 제작', '편물과 자수'에 대하여는 현행수준을 유지하거나 내용적 축소를, '의복 선택과 착용', '의복재료와 관리'는 현행수준을 유지하되 부분적 수정/개선 내지는 강화를 요구하는 정도로 나타났다. 주생활영역 역시 상당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주생활과 환경'은 현행수준을 유지하되 부분적 수정/개선 내지는 강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주거의 디자인', '주거의 관리'는 현행수준을 유지하되 부분적인 수정/개선을 요구하는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3) 향후 개정 시 추가되어야 할 내용 및 문제점, 방향

(1) 향후 추가되어야 할 교과내용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개방형 설문 3문항은 향후 개정에 대비하여 가정과학에 추가되어야 할 교과내용, 현행 가정과학의 문제점 및 앞으로 가정과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 이었다. 그 첫 번째가 향후 개정에 대비하여 가정과학에 추가되어야 할 교과내용에 관한 것으로 전체 조사대상자 중 30명이 응답한 것을 영역별로 분류하여 <표 7>에 정리하였다.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것은 기타에 분류한 것으로 '예절관련', '진로교육', '환경오염 및 보호' 내용으로 30명 중 13명이 추가되어야 할 내용으로 꼽고 있었다. 다음으로 가족생활영역으로 '임신·출산과 관련한 산후조리 및 자녀양육', '노후설계', '가정폭력 및 가족문제', '성교육' 등이었으며, 식생활영역은 3번째로 많은 응답을 보였는데, 그 내용으로는 '영양과 조리의 통합내용', '건강과 영양·현대성인병과 영양', '다양한 국가의 음식문화 및 예절' 등이었다. 소비생활영역에는 '가정경제의 중요성 및 경제교육', '자원관리 및 카드대란', '여가활용' 등으로 나타

<표 7> 향후 가정과학에 추가되어야 할 내용(중복응답)

구분	추가되어야 할 내용	단위: 명
		합계 (N=30)
가족생활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출산에 관련한 산후조리, 자녀양육 • 노후설계 • 가정폭력 및 가족문제 • 성교육(사이버성 포함), 양성평등 	8
소비생활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경제의 중요성, 경제교육 • 자원관리, 카드대란 • 여가활용 	4
식생활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양과 조리의 통합내용 • 건강과 영양, 현대성인병과 영양 • 다양한 국가의 음식문화 및 음식예절 	5
의생활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소재, 의복착용법의 보완 • 한복과 서양복의 실생활에 활용가능한 내용; 손바느질을 이용한 실습내용 	2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절관련: 생활예절, 전통문화관련, 인성교육 • 진로교육: 체계적 직업과정, 적응프로그램 • 환경오염 및 보호 	13

났으며, 의생활영역에는 '신소재 및 의복착용법의 보완', '한복과 서양복의 실생활에 활용가능한 내용'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생활영역에 관한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이러한 대역역의 내용 중 대부분은 현행 가정과학의 교과내용에서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론되고 있는 것은 내용의 양이나 질에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느끼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기타에 속하는 내용 중 진로교육 또한 마찬가지로 각 대역역의 후반부에 다루어지고 있으나 그 내용이 만족할 만하다고 볼 수 없는 수준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가운데 예절관련에 관한 내용은 매우 전통적인 내용으로 생각되어지는데, 본 연구의 조사지역인 부산시, 울산시, 경남지역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적인 것인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오늘날 가정에서도 생활예절이나 전통문화가 제대로 교육되지 못한 부분이

많으므로 학교교육에서 이루어져야한다면 이를 다룰 수 있는 교과는 가정과학 밖에 없다고 본다. 가정과학이 학교교육의 목적을 실현하기위하여 교육과정에 설정된 교과의 하나로(이연숙,2002) 본다면, 현재와 같이 대학의 가정학개론에 유사한 경향에서 벗어나 인간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새로운 시각에서의 편성이 요구되는 바이다.

(2) 현행 가정과학의 문제점 및 나아가야 할 방향

7차 교육과정 하에서의 가정과학이 지닌 문제점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향에 대하여 모두 49명이 응답하였는데, 응답내용을 교과운영면과 교과내용면으로 나누어 정리하여 <표 8>에 나타내었다. 교과운영면의 문제점 지

<표 8> 가정과학의 문제점 및 향후 나아가야할 방향 (중복응답)

구분	문제점	나아가야할 방향	단위:명 합계 (N=49)
교과 운영면	• 시수부족	• 시수 확보 • 가정과학의 위상 재정립 • 가정생활의 기본원리 강조 • 가정교육의 중요성 강조	10
	• 비수능교과인 점 • 실질적 수업 진행 곤란	• 수능교과로 진입	13
	• 실습수업의 곤란	• 교사의 적극적 자세 강조	5
	• 학생들의 흥미부족	• 진로교육의 기회 제공 및 강조 • 실생활 접목 가능한 교과로 변화	7
합계			35
교과 내용면	• 교과내용의 과다함	• 교과(기술,가정)와 중복된 내용 배제 • 영역별 중복내용의 통합 필요 • '기술·가정' 과 '가정과학' 의 심화수준재조정 • 2~3개영역을 묶어 심도 깊게 다룬 다양 한 교과서군의 출판으로 다양한 선택가능	6
	• 낮은 심화수준 • '기술·가정' 내용과의 중복 • 진부한 교과내용	• 영역별의 기초적 원리 취급 • 시대를 반영한 새로운 지식, 내용 추가 • 현대적 감각의 교과서 출판	12
	• 교과내용의 이론적 체계 와 조직적 학습개발 미흡 • 교과내용의 다양한 프로그램 부족	• 학습자주도적 수업 프로그램 개발 • 다양한 수업자료의 개발	3
	• 실습내용의 현실성 부족	• 시수가 적게 소요되는 실습내용 구성 • 현실적이며 활용하기 쉬운 내용 구성 • 교과의 고유성과 특성을 살리며 현실에 부합되는 실습내용 보완	3
합계			24

적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었는데(49명중 35명), '수능교과에 포함되지 않은 점', '시수 부족', '학생들의 흥미부족', '실습수업의 곤란함' 등을 지적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은 대학수능에 포함되지 않은 교과로 인하여 연쇄적으로 발생되는 점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방향으로 '수능교과로 진입', '시수 확보' 등을 잡고 있으나 교육과정 전체에 관련된 무척이나 어려운 과제이다. 그 외에 '가정과학의 위상 재정립', '진로교육의 본래 취지를 살리는 교과로 나아가는 점', '실생활에 접목 가능한 교과로 전환', '교사의 적극적 자세' 등이 거론되고 있다.

교과내용면에서는 전체 49명 중 24명이 응답하였는데, '교과내용의 과다', '심화수준의 문제', '기술·가정과의 내용적 중복', '진부한 교과내용', '현실을 반영한 실습수업이 되지 못하는 점' 등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교과내용이 과다하게 많다고 보는 점은 심화수준이나 기술·가정과의 중복, 교과내용의 진부성 등과 상호관련되어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진다. 교과내용의 조직 시 기술·가정과의 중복을 좀더 과감하게 배제하거나 내용의 질적 심화수준을 높이던지 하였어야 하는데, 이런 점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초등의 실과, 기술·가정, 가정과학의 교육과정위원회가 하나의 위원회로 활동할 필요가 있겠다. 교사들은 가정과학의 교과내용 5개 대영역 중 2개 이상의 대영역을 선택하여 집중이수할 수 있었으나 심화수준이 충분치 못하여 불만이거나 기타 다른 여러 이유로 인하여 많은 교사가 4~5개 대영역을 수업내용으로 선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보면 수업시수에 비하여 교과내용이 과다하게 많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실습수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데(예를 들면 재봉실이 없는데도 재봉틀을 이용한 실습내용), 이를 반영치 못한 실습내용에 대하여 불만 내지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었다.

이러한 교과내용에 대하여 나아가야 할 방안으로 '중복내용의 배제'와 '심화수준의 조정', '영역간의 내용적 통합', '시대적 감각을 띤 내용의 구성', '현실을 반영한 실습내용의 선정' 등을 거론하고 있었다. 특히 2개 이상의 대영역을 선택하여 집중이수할 수 있으므로 아예 교과서를 2~3개 대영역을 묶어 몇 개의 교과서군으로 출판하여 교사로 하여금 선택가능하게 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그 외에 다양한 수업자료의 개발이나 수업프로

그램의 개발을 제시하고도 있다.

따라서 앞으로 가정과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는 수능교과로의 편입이나 시수확보와 같은 제도적 개선부분도 있고, 보다 새로운 시각과 감각으로의 교과내용 선정, 초·중등교육과정을 일관하여 본 교과내용의 구성, 현재 및 미래의 생활 및 진로교육의 바탕이 되는 교과내용적인 부분 등도 있으므로 가정과학의 정책을 수립하는 교육전문가들은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V. 결론

본 연구는 부산시, 울산시, 경남지역에 소재하는 일반계 고등학교 중 여자고등학교와 남녀공학에 근무하는 가정과학 담당 교사들을 대상으로 가정과학의 운영실태와 교과에 대한 인식을 통하여 향후의 수시개정에 대비하고 보다 바람직한 가정과학의 교육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실시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첫째, 가정과학의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가정과학을 이수하고 있다고 응답한 교사의 근무교과 여고일수록 총 학급 규모가 클수록 가정과학을 이수하고 있었으며, 근무교사 수도 많았다. 교사들은 가족생활 영역과 식생활 영역을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였으며, 70%의 교사들이 4~5개 대영역을 수업내용으로 선택하고 있었다. 가정과학의 수업 시 가장 큰 애로사항은 학생들의 흥미부족과 참고서 부족이었는데, 고등학교의 학사 운영이 대학수능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서 대학수능에 포함되지 않는 교과인 관계로 겪는 어려움으로 파악된다.

둘째, 가정과학 교과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교사들은 가정과학이 기술·가정과는 연계성이 높은 교과로 인식하고 있으며, 교과목표면에서 진로와 직업탐색에서 취약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가정과학의 교과내용에 대한 필요도는 전반적으로 높게 인식되었으나, 교사들이 본 학생들의 흥미도는 이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특히 가족생활과 식생활 영역에 관해서는 필요도와 흥미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반면에 기능을 많이 다루

는 영역에 관해서는 필요도와 흥미도가 낮게 나타났다. 미래 요구도에서는 교과내용의 전반에 걸쳐서 다소의 수정/개선과 강화가 요구 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소비자역할과 보호' 및 '가족의 영양과 건강'에 대해서는 강화가, '편물과 자수', '의복의 디자인과 제작'은 내용적 축소가 요구되고 있었다. 향후 추가되어야 할 내용으로는 현행 내용수준에 대한 불만에 기인하는 요구로 나타나는 부분도 많았는데 최근의 가정 및 사회의 변화 현상을 반영할 필요가 있겠다. 특히 '예절관련'의 요구는 지역적 특성인지 판단이 유보된다. 교사들은 가정과학이 지닌 문제점으로 제도적 측면을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으며, 교과내용에 관하여는 내용의 과다, 중복, 진부성, 심화수준 등을 지적하고 있었다. 이는 가정과학의 담당 교사들은 교과내용의 대영역별 편성보다는 생활을 기초로 한 통합적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보면, 현행 고등학교의 기술·가정의 심화선택과목은 선택율이 낮아 상당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보여지며, 학교교육이 대학입시보다는 바람직한 전인교육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본 연구가 비록 일부 지역에 한정된 조사이기는 하지만, 가정과학에 대하여 교사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새로운 변신을 요구하고 있다고 본다. 먼저 기술·가정과 의 일관된 내용 체계를 유지하면서 중복되는 내용은 과감하게 배제하여 명실상부한 심화과목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최신의 내용에 접목하면서도 생활의 전반에 걸친 기초능력을 한층 배양시킬 수 있어야 하고, 질적 심화가 있어야 할 것이고, 진로 및 직업탐색 분야에 대한 교육적 요구도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가정과학의 내용조직에 있어서 생활을 바탕으로 한 통합적인 시각에서의 접근방법이 요구되는 바이며, 앞으로 가정과학이 학교교육의 일환으로서 존재하기 위한 다양한 각도의 노력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 곽노선·조재순(2002), 「기술·가정」 교과운영에 대한 교사, 학교장 교육전문직의 인식과 요구, 대한가정학회지, 40(7), 127-140.
- 김경애, 정난희, 신부용(2003), 중·고등학생의 제 7차 기술·가정 교과내용에 대한 인식, 한국가정교과교육학회지, 15(2), 101-120.
- 김상희(2003a), 기술·가정교과 운영실태와 평가 경남지역 소재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 한국가정교과교육학회지, 15(3), 29-44.
- 김상희(2003b), 경남지역 중·고등학교 학생에 의한 기술·가정교과의 수업운영 및 교과내용에 대한 인식, 한국가정교과교육학회지, 15(4), 87-103.
- 김승수(1993), 중학교 기술·가정통합교과의 교육실태 분석과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인경(1991), 남녀 중학생의 기술·가정 통합교과 내용에 관한 인식도 차이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인애(1990), 기술·가정 통합교과 내용구성에 대한 인식도 조사-서울시내 중학교 학생 과 교사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일순(1992), 중학교 기술·가정교과 통합에 따른 남녀학생들의 학습결과 비교에 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순옥(2002),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 운영 형태와 관련 만족도, 한국교원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 유지연·신상옥(2006), 제 7차 고등학교 가정과학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 대한가정학회지, 43(1), 1-15.
- 이연숙·조재순·곽노선(2002), 「기술·가정」 교과 운영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요구, 한국가정교과교육학회지, 14(2), 1-14.
- 이연숙(2002), 가정교과교육의 이론과 실제, 신광출판사
- 채정숙(1993), 중학교 기술·가정 통합교과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의 태도분석,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정화·장윤옥 (2000), 제7차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가정과학' 과목 선택 결정 요인, 한국가정교과교육학회지, 12(3), 157-170.
- 허경철(2001), 제7차 교육과정에서의 기술·가정교과 설정의 배경, 한국가정교과교육학회지, 13(1), 107-116.

〈국문요약〉

본 연구는 부산시, 울산시, 경남지역에 소재하는 일반계 고등학교 중 여자고등학교와 남녀공학에 근무하는 가정과학 담당 교사 70명을 대상으로 가정과학의 운영실태와 교과에 대한 인식을 통하여 향후의 수시개정에 대비하고 보다 바람직한 가정과학의 교육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은 2004년 10월 20일~11월 26일까지에 걸쳐 조사대상학교로 설문지를 우송하는 우편설문조사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보면, 가정과학은 여고일수록 총학급 규모가 클수록 가정과학을 이수하고 있었으며, 근무교사 수도 많았다. 수업내용으로 다루고자 하는 영역을 살펴보면, 70%의 교사들이 4~5개 대영역을 선택하고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가족생활과 식생활 영역을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였다. 가정과학의 수업 시 가장 큰 애로사항은 학생들의 흥미부족과 참고서 부족으로 나타났다.

가정과학 교과에 대한 인식에서 교사들은 가정과학이 기술·가정과는 연계성이 높다고 보고 있었으며, 교과목 표면에서 진로와 직업탐색에서 취약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가정과학의 교과내용에 대한 필요도는 전반적으로 높게 인식되었으나, 교사들이 본 학생들의 흥미도는 이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특히 가족생활과 식생활 영역에 관해서는 필요도와 흥미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반면에 기능을 많이 다루는 의생활과 주생활 영역에서는 필요도와 흥미도가 낮게 나타났다. 미래 요구도 면에서는 교과내용의 전반에 걸쳐서 다소의 수정/개선과 강화가 요구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소비자역할과 보호' 및 '가족의 영양과 건강'에 대해서는 강화, '편물과 지수', '의복의 디자인과 제작'은 내용적 축소가 요구되고 있었다. 향후 추가되어야 할 내용으로는 최근의 가정 및 사회의 변화 현상을 반영할 필요가 제기되었고, 교사들은 가정과학이 지닌 문제점으로 교과내용의 과다, 중복, 진부성, 심화수준의 불충분함 등을 지적하고 있었다.

■ 논문접수일자: 2005년 4월 21일, 논문심사일자: 2005년 4월 29일, 게재확정일자: 2005년 6월 15일